

12월 6(월) / 약 1-5

▶ 내용요약 :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이다. 1장에서 야고보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도 했다.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말 뿐인 믿음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강조했다. 이어서 3장에서는 말을 삼가도록 교훈하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한편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상기시키며,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부요한 자들에게 특별히 경고함으로써 겸손하고 청렴한 삶을 살도록 교훈했다. 이후 더욱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다시금 권면하면서 편지를 맺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2장)
“()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 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 생각하기 :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킨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삶의 모습이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그 행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자. 그리고 삶에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자.

12월 9일(목) / 요일 1-5

▶ 내용요약 : 요한일서 1장은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사귀어 있다고 하는 이들은 빛 가운데에서 행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자 대언자 되심을 증명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새 계명을 따르라고 교훈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도록 했다. 3장에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4장은 하나님의 영광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교훈했다. 마지막 5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4장)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은 ()이심이라”
▶ 생각하기 :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에서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의도적, 적극적, 반복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존재로 드러나길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자.

12월 12일(일) / 계 19-22

▶ 내용요약 :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을 향한 허다한 무리의 찬송으로 시작된다.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고,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 또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다. 이후에도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큰 소리로 찬송했다. 또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랑, 신부의 모습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묘사했다. 20장은 천 년 왕국에 대해 설명했다. 사탄은 패망할 것이며, 주께서는 크고 흰 보좌

12월 7일(화) / 뱀전 1-5

▶ 내용요약 :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권면했다. 2장에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산 돌(the living Stone)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했다. 또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라고 교훈했다. 3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마땅한 신앙적 태도에 대해 가르친 후, 선을 위한 고난을 받으라고 했다. 4장에서는 성도들을 ‘선한 청지기’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잘 돌보며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함을 장로들에게 교훈하고 편지를 마쳤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2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은 ()들이요”
▶ 생각하기 :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면서도,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일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따뜻한 위로와 더불어,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와 리더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자.

12월 10일(금) / 요일1 - 유1

▶ 내용요약 : 요한이서에서 요한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교훈했다. 또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삼가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도록 교훈했다. 한편 요한삼서에서 요한은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을 영접하도록 권면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복음의 일꾼들을 거부한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도 전했다.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게 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도록 교훈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유다서)
“이 사람들은 ()을 일으키는 자며 ()에 속한 자며 ()이 없는 자니라”
▶ 생각하기 : 갈수록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절대적인 기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소유한 진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묘사되어 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마지막 22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속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만약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한다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다.

12월 8일(수) / 뱀후 1-3

▶ 내용요약 : 베드로후서 1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를 부르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2장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도록 교훈했다. 그리고 그 무법한 자들과 그들의 거짓 교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면서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도록 권면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3장)
“우리는 그의 ()대로 의가 있는 곳인 ()과 ()을 바라보다도”
▶ 생각하기 :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방탕한 삶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힘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에 감격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온전한 순종을 주께 드리자.

12월 11일(토) / 계 1-3

▶ 내용요약 :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밧모섬에 있던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은 계시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냈다.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의 사랑을 버렸음을 드러내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 또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하셨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위상송배와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버리도록 하였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지적하셨다. 3장에서 주님은 사데교회가 죽은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라고 명하셨다. 또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다. 마지막으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적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 질문 :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교회는? (3장)
▶ 생각하기 :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순종과 인내를 이루었다. 혹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붙잡으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 능력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게 될 것이다.

▶ 질문 :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21장)
▶ 생각하기 :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가장 큰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때로 우리 자신과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용히 묵상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